

스포츠 동아

2020년 2월 17일 월요일
sportsdonga.com 10판



영화 '기생충'으로 작품상과 감독상 등 아카데미상 4관왕을 차지한 봉준호 감독이 1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입국장에서 카메라를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 |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진짜 박수를 받을 사람은 코로나 극복한 우리 국민”

봉준호 귀국...19일 기자회견 등 한국일정 빼곡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상 4관왕에 빛나는 오스카 트로피를 들고 돌아왔다.

봉준호 감독은 16일 오후 6시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미국 LA에서 귀국했다. 150여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와 공항 이용객들의 박수를 받으며 입국장에 모습을 드러낸 그는 “매우 감사하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훌륭하게 극복하고 있는 국민들께 제가 박수를 쳐 드리고 싶다”며 인사했다. 이어 “이제 조용히 원래 본업인 창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돼 좋은 마음이다”고 덧붙였다.

봉준호 감독은 지난해 10월 '기생충'의 북미 개봉 이후 LA에 머물러왔다. 현지에서 영화를 알리는 '오스카 캠페인' 강행군을 벌였고, 10일 제92회 아카데미상 4관왕에 오른 뒤에도 관련 일정을 소화해왔다. 주연 송강호, 제작자 박산에 바른손 E&A 대표 등은 12일 귀국했다.

봉 감독은 이들 아카데미 시상식에 함께 참석한 '기생충'의 주역들과 19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영화사를 새로 쓴 소감과 그에 얽힌 뒷이야기를 밝힌다. 이후 20일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으로 청와대를 찾는다. '기생충'에 높은 관심을 보인 문 대통령과 어떤 대화를 나눌지 관심이 쏠린다. 26일에는 '기생충'의 흑백판을 공개한다. 봉 감독이 흥행표 촬영감독과 한 장면씩 손수 작업한, 일종의 번외편이다.

한편 16일 현재 '기생충'의 전 세계 매출액이 1억 7042만 달러(박스오피스모조 집계)를 기록, 2000억 원을 돌파했다. 이혜리 기자 golf1024@donga.com



'여제의 귀환.' 박인비(가운데)가 16일 호주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 로열 애들레이드 골프클럽에서 열린 ISPS 한다 호주 여자오픈 4라운드에서 최종합계 14언더파·278타로 우승을 확정지은 뒤 동료들로부터 샴페인 세리모니를 받고 있다. 약 2년 만의 우승으로 박인비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통산 20승에 입맞춤했다. 사진 출처 | 골프 오스트레일리아 인스타그램

박인비, 호주여자오픈 우승...지긋지긋한 아홉수 끊었다

LPGA 20승...이젠 올림픽이다!

(개인통산)

고비마다 절묘한 퍼트·안정된 경기력 박세리 이어 한국선수론 두번째 20승 세계랭킹 15위 진입 전망 도료행 기대



마침내 '골프 여제'가 되돌아왔다. 2018년 3월 뱅크 오브 호프 파운더스컵 우승 이후 5번의 준우승만 기록했던 박인비(32·KB금융그룹)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개인통산 20승(메이저대회 7승 포함)째를 달성했다. 시즌 개막전 다이아몬드드리프트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 준우승에 이어 시즌 4경기 만이다. 현재 세계랭킹 17위 박인비가 올림픽 2연패를 위해서는 세계랭킹 15위와 우리 선수들 가운데 세계랭킹 상위 4명 안에 들어야 한다.

16일 호주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 로열 애들레이드 골프클럽(파73·6633야드)에서 벌어진 ISPS 한다 호주 여자오픈(총상금 130만 달러·약 15억 4000만 원) 최종 4라운드에서 박인비는 3개의 버디와 4개의 보기를 1타를 잃고 74타를 기록, 최종합계 14언더파·278타로 우승을 차지했다. 우승상금은 19만5000달러(약 2억3000만 원)다. 2위 에이미 울슨(미국)과는 3타 차.



박인비가 ISPS 한다 호주 여자오픈에서 LPGA 투어 통산 20승을 차지한 뒤 우승컵에 입을 맞추고 있다. 사진 출처 | 골프 오스트레일리아 트위터

이번 우승으로 박인비는 박세리(43·25승)에 이어 두 번째로 LPGA 투어 통산 20승 고지를 밟은 한국 선수가 됐다. LPGA 투어 역사상으로는 범위를 넓혀도 28번째 20승의 주인공이다.

시속 14~21km의 강한 바람이 불고 오후가 될수록 그린이 딱딱해져 많은 선수들이 쉽게 타수를 줄이지 못한 가운데 박인비는 안정된 경기운영으로 선두자리를 지켜냈다. 15언더파 단독선두로 최종라운드를 시작한 박인비는 1번 홀에서 어프로치 샷이 짧아 보기를 기록했다. 출발은 불안했지만 3번 홀 버디로 만회한 박인비는 4번 홀에서 5m가

넘는 버디퍼트를 성공시켜 16언더파를 만들었다. 통산 20승의 첫 번째 모멘텀이었다.

“지난해 퍼트가 원하는 곳에 가지 않아 몇 차례 우승을 놓쳤다. 올해 가장 좋아졌으면 하는 것이 퍼트”라던 박인비의 바람은 이번 대회에서 이뤄졌다. 6, 8번 홀 모두 2온에 실패하고도 1퍼트로 마무리하며 파 세이브를 했다. 2번째 계기였다. 박인비는 파5 9번 홀에서 4온 2퍼트를 하며 15언더파로 되돌아갔다. 후반 9개 홀을 남겨두고 5타차로 앞서 가던 박인비는 파4 14번 홀과 파3 16번 홀 보기로 13언더파가 됐지만 추격자 울슨이 11언더파로 경기를 마쳐 여유는 있었다. 12언더파의 류위(중국)도 마지막 3개 홀에서 보기를 하며 주저앉았다. 박인비는 파5 17번 홀에서 2온 2퍼트를 하며 사실상 우승을 확정했다.

아쉬운 것은 12언더파 단독 2위로 박인비와 함께 챔피언조에서 경기를 했던 조아연(19·불빅)이었다. 단독 선두로 출발했다가 최종라운드에서 무너졌던 지난주 ISPS 한다 빅 오픈의 실수를 반복했다. 3번 홀 버디로 출발했지만 4번 홀에서 티샷이 소나무 뿌리 부근으로 간 게 불운했다. 결국 조아연은 6개의 보기와 2개의 버디로 4타를 잃으며 8언더파 공동 6위에 그쳤다.

▶ 관련기사 2면

김종건 기자 marco@donga.com

이번엔 연에게 프로포폴 스캔들...불법투약 연루 유명 배우는 누구? ▶ 2면

CJ CHEILJEDANG



미네랄2종
(아연·구리)

비타민4종
(A/C/E/베타카로틴)

루테인
지아잔틴
복합추출물

중장년의 침침하고 흐린 눈엔 아이시안 멀티케어 골드

눈의 중심부인 황반의 구성 성분 '루테인'과 '지아잔틴'

수정체를 통해 들어온 빛이 상으로 맺히는 부분인 황반은 시상세포가 밀집되어 있는 우리 눈의 중심 부분입니다. 황반은 루테인과 지아잔틴색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노화로 인해 황반을 구성하는 색소밀도가 감소하면 눈이 침침해지고 흐려지게 됩니다. 중장년의 눈 건강, '루테인·지아잔틴 복합추출물'로 챙기십시오!

식약처에서 기능성을 인정한 눈 건강기능식품

식약처에서 기능성을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인 아이시안 멀티케어 골드는 식약처 1일 권장섭취량(20mg)을 충족하는 루테인·지아잔틴복합추출물을 함유하고 있어 노화로 인해 감소할 수 있는 황반색소 밀도를 유지시켜주는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하루 한 캡슐로 눈 건강과 기초 영양까지 케어

아이시안 멀티케어 골드는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원료 뿐 아니라 기초 영양 케어를 위해 1일 권장량을 100% 충족시키는 비타민 4종(A, C, E, 베타카로틴)과 미네랄 2종(구리, 아연)이 들어있습니다.

6개월분 구매 시
정상가대비 41% 할인

CJ제일제당
건강카운셀러
무료상담 및 주문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080-330-9988

